



고객만족과 사회참여를 위해 뛰는 벤처의 6월

유니닥스, 개인 사용자 버전 PDF 변환솔루션 무료배포 실시



PDF 솔루션 전문업체 유니닥스(www.unidocs.co.kr, 대표 정기태)는 한글문서, MS 오피스문서, 훈민정음 문서 등 출력 가능한 모든 문서를 손쉽게 PDF로 변환할 수 있는 개인 사용자 버전 PDF 변환 솔루션 "ezPDF Builder

2006" 정품을 무료배포한다.

개인 사용자들은 유니닥스 홈페이지(www.unidocs.co.kr) 및 인터넷 포털 자료실에서 무료로 제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가기록원에 의해 지정된 문서보존표준포맷 PDF/A-1에 의한 전자기록 영구보존기술 적용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던 유니닥스는 개인 사용자 버전 "ezPDF Builder 2006" 솔루션 무료 배포로 개인사용자들은 손쉽게 PDF 문서를 만들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쓰리넷(주), '희망동전쌓기' 진행



이쓰리넷(주)대표 성영숙)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소액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정정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사무총장 박동은), 한국게임산업진흥원(원장 우종식)과 공동으로 '2007년 희망동전쌓기 캠페인(www.dreamcoin.org)'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동전을 쌓은 만큼 유니세프와 기아대책에 기부할 수 있어, 게임도 즐기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이색체험캠페인이다. 5월 11일 삼성동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박양우 문화관광부 차관을 비롯한 많은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오픈쇼를 개최한 이번 행사는 이후 전국 규모로 확대하여 6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아이네트호스팅, '호스팅 서비스 최저가 보상제' 실시



인터넷 종합서버호스팅 전문기업인 아이네트호스팅(http://www.inet.co.kr, 대표 신중현)은 오는 5월 21일부터 7월 말까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IBM, SUN, Dell 등 브랜드서버를 중심으로 '호스팅 서비스 최저가 보상제'를 실시한다.

'호스팅 서비스 최저가 보상제'는 아이네트호스팅이 제시하고 있는 호스팅 서비스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을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호스팅 서비스 최저가 보상제'로 인해 신규고객들은 기존에 아이네트호스팅이 제공하고 있는 양질의 호스팅 서비스를 국내 최저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지로보틱스, 로보비즈니스 2007 참가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인 이지로보틱스(대표 조원태 www.izirobotics.com)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로보비즈니스 2007 (RoboBusiness 2007) 전

시회에 참석했다.

미국 메사추세츠 보스턴에서 Robotics Trends(로봇전문 미디어), IDG(국제 IT전문 리서치 기관) 주최로 열린 '로보비즈니스 2007'은 올해로 4회를 맞는 전 세계 유일한 산업전문박람회다.

로봇비즈니스는 로봇을 전시하는 다른 로봇 행사들과는 달리 로보틱스 분야의 비즈니스개발 및 기술적 부분의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이다. 이에 참가업체의 시장개발, 로봇공학의 상업적 응용, 지능시스템의 기술개발, 투자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지로보틱스는 '로보비즈니스 2007'에서 ER-6, 축구로봇, I-pet 등을 전시했다.



신규 사업 진출과 수출 열기

루펜리, 음식물 처리기 日에 700억 수출 계약



음식물 처리기 분야 선두 업체인 루펜리(www.loofen.net, 대표 이희자)가 향후 1년간 일본에 700억 원 어치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일본 가전유통 업체인 로타리 아키사와 가정용 5만 대, 업소용 1만 대의 음식물 처리기를 수출하기로 한 것으로 일본에서도 '루펜' 이란 이 회사 고유브랜드로 판매된다. 이에 앞서 루펜리는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제35회 제네바 국제발명·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회'에서 금상과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컴 씹크프리, 일본시장 본격 진출



한글과컴퓨터(www.haansoft.com, 대표 백종진) 자회사 한컴씹크프리(대표 강태진)가 일본 최대 PC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소스넥스트(Sourcenext Corporation, 대표 노리유키 마츠다)사와 일본 내 웹 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개 베타서비스를 시작한다.

이것은 한컴씹크프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웹 오피스 서비스인 '씹크프리 오피스(www.thinkfree.com)'의 일본시장 본격 진출을 위한 것으로, 양사는 무료 웹 오피스 서비스인 씹크프리 온라인을 비롯해 씹크프리 데스크톱, 씹크프리 프리미엄 서비스 등을 올해 3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일본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컴씹크프리측은 소스넥스트사로부터 라이선스 비용을 받는 것 외에도 향후 일본서비스 매출도 나누어 갖게 된다. 이로써 한컴은 지난 해 11월 국내 최대 포털인 NHN과 웹 오피스 공급계약을 맺은데 이어, 일본 최대 PC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소스넥스트와의 제휴를 통해 전세계 웹 오피스 시장의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양사가 일본에 선보일 씹크프리 웹 오피스 서비스는 '씹크프리 테가루 오피스(ThinkFree Tegarū Office, www.thinkfree.co.jp)'로 명명되었으며 워드프로세서인 '라이트(Write)', 표계산 프로그램인 '캘크(Calc)',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인 '쇼(show)'로 구성되어 있다. 테가루(Tegarū)는 일본어로 '사용하기 쉽다, 간편하다'는 의미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 네티즌들은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환경에서 문서작성이 가능한 씹크프리 웹 오피스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MS 오피스 파일과 완벽하게 호환 되면서도 손쉬운 활용과 온라인 공유 기능 등을 통해 웹 2.0 시대에 맞는 온라인 문서 작성 환경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잉카인터넷, 안티바이러스 사업 공식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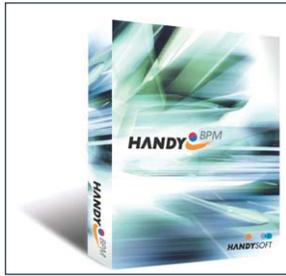
잉카인터넷(www.nprotect.com, 대표 주영흠)이 안티바이러스와 안티스파이웨어 기능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개인용 통합 PC보안 솔루션을 출시한다. 자체 개발한 개인용 통합보안 솔루션인 '엔프로텍트 인터넷 시큐리티 2007'을 6월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으로 제품 베타테스트를 4월 19일부터 진행하였다.

신제품 '엔프로텍트 인터넷 시큐리티 2007'은 듀얼엔진을 탑재한 안티바이러스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나의 보안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클라이언트 보안모듈이 컴포넌트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용자를 위한 패키지로서 뿐만 아니라, 기업용 PC 보안솔루션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이 제품의 안티바이러스 기능은 잉카인터넷이 자체 개발한 엔진과 'F-프로텍트'의 엔진을 사용한 듀얼엔진으로 구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안티바이러스의 공신력과 해외 제품의 미흡한 국내 서비스 대응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VENTURE FOCUS

핸디소프트 '핸디 BPM',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차지



핸디소프트(www.handysoft.co.kr, 대표 황의관)의 업무프로세스관리(BPM) 제품인 '핸디 BPM' 이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전사 BPM 프로젝트인 LG전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삼성SDI·LG화학·삼성중공업·SK텔레콤·KTF 등 다양한 기업에 제품을 공급했다. 또 최근 공공부문의 BPM 도입이 늘면서 정보통신부 '정책품질관리 시스템', 농림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품질경영시스템' 등을 수주했고, 금융권에서는 교보생명 '여신관리시스템' 을 구축했다.

특히 KTF의 BPM 사례는 2006년 영국에서 열린 '2006 글로벌 어워드 BPM & 워크플로우' 에서 금상을 받는 등 BPM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을 5년 연속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외에도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가트너의 매직퀵드런트에 등록됐으며 국내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 최초로 'CMM 레벨 5' 를 획득한 바 있다.

(주)인성정보, 대신증권 전 지점 IP텔레포니 구축



(주)인성정보(www.insunginfo.co.kr, 대표 원종윤)는 지난 해 대신증권(www.daishin.co.kr, 대표 노정남)에 시스코 IP 컨택센터(IPCC) 솔루션을 기반으로 콜센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한데 이어 올해는 전국 109개 지점에 시스코 IPT(IP Telephony, 이하 IPT) 시스템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대신증권 전 지점 콜 집중화 프로젝트' 는 전국 109개 지점에 모두 적용 예정으로 지난 달부터 구축 작업에 들어가 올해 안에 구축완료, 오픈이 이뤄질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도입된 시스코IPT 시스템은 TDM 기반의 전화 인프라를 IP기반으로 전환, IP 환경에서 음성과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기업들이 통신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협업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시스코 통합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의 핵심적인 구성 제품으로 메신저, 모바일리티, 일정관리, 화상회의 등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도입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오인터랙티브, 중국 모바일게임시장 돌풍 기대



'질주쾌감스캐쳐', '메이저 2007', '우당탕탕 헤어샵' 등 다수의 모바일 게임을 개발, 서비스 해온 지오인터랙티브(www.clubzio.com, 대표 김병기)는 최근 미국과 중국과 계약을 맺고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구피게임(Team-up)과 리얼아케이드(신 물고기먹기 외 3종)의 공급계약을 미국사와 체결한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 이탕(Sanmao)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올해 'ZIO SPORT' 브랜드를 론칭할 예정이기도 한 지오인터랙티브는 최근 목단강시(牡丹江市)와 멀티미디어산업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를 체결, 게임 및 애니메이션 개발과 IT인력 양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여 앞으로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거센 돌풍이 기대된다.

미라콤, SOA시장 진출



미라콤아이앤씨(www.miracom.co.kr, 대표 백원인)가 기업애플리케이션(EAI) 공급 실적을 공개하며 SOA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핵심 기술인 엔터프라이즈서비스버스(ESB) 개발에 착수했다.

EAI 분야에서 업무프로세스관리(BPM)와 서비스지향아키텍처(SOA)를 고려한 프로젝트가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EAI 기반의 BPM 제품인 '하이웨이101 BPMS'로 다양한 레퍼런스를 확보한데 이어 SOA를 위한 표준 기반의 엔터프라이즈서비스버스(ESB) 제품을 개발, 연말부터 시장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미라콤은 자사 기업애플리케이션통합(EAI) 솔루션인 '하이웨이101'을 인천공항철도를 비롯해 KT, 하이닉스, 파워콤, 송도U시티, 롯데마트 등에 공급했으며, 올 1·4분기에만 28억 원의 수주액을 올렸다.



사업제휴를 통한 알로 개척

유플랫폼 - 니트젠과 포괄적 마케팅 제휴



유플랫폼(www.uplatform.net, 대표 신기영)과 니트젠(www.nitgen.com, 대표 배영훈)은 2일 지문인식 제품의 독점적 공급과 서버기반컴퓨팅(SBC) 기술 및 마케팅 지원을 골자로 사업제휴를 맺었다.

두 회사는 국내 바이오인식 관련 공공 프로젝트와 SBC 비즈니스부문에서 협조하고 사업모델 발굴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니트젠은 전국 공공기관에서 구축 중인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지문인식 마우스를 공급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유플랫폼은 이노비즈 인증기업으로 SBC 기술을 이용해 공공기관의 자료유출방지 시스템(uPLATFORM GTMS V4.0), 병원 등의 원격진료시스템, 기업·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한 원격근무 지원 시스템 등을 공급한다.

화이트정보통신, e-HR 시스템 프로젝트 수주



e-HR 기업인 화이트정보통신(www.win.co.kr, 대표 김진유)이 2007년 1/4분기에 사노파-이벤티스 코리아, 비씨카드2차, 신한은행3차, 현대해상화재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통운,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모두 7개 고객사의 e-HR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다국적 제약기업 사노파-이벤티스 코리아를 고객사로 확보한 화이트는 아디다스코리아, 디아지오코리아에 이어 해외진출의 거점 사이트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2015년 글로벌 HR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게 되었다.

화이트가 e-HR분야에서 다국적 ERP업체 및 국내 대형 SI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 선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써, 올해 초 발표한 100억 원 기업 매출 달성은 1/4분기의 안정적인 프로젝트 수주로 인해 순항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